

광주 '車 100만대' 예타 꼭 통과돼야

중국·인도 자동차 회사들 투자협약·정치권도 초당 협력 약속
정부, 조사결과 다음달 발표...市노조 전공노 가입 연계 안 돼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외국 완성차 회사들이 광주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광주 자동차 100만대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전국 공무원노조) 가입 문제로 광주시가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불편한 관계를 빚으면서 예타 통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달 중 두 차례 검토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초 통과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국 지우자동차의 투자협약과 함께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광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우자동차는 올해 한국법인 설립해 공극적으로 2020년까지 연간 10만대를 광주에서 생산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앞서 딜립 순다람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은 지난 3월 광주시를 찾아 윤 시장과 접견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 민심을 고려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도 사업 추진에 큰 호재 중 하나다. 특히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미래자동차 전장사업 유치를 당차원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면서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예타 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주요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이끌었던 사회통합지원센터가 광주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 업무를 중단하는 등 '삐걱' 거리고 있다. 또한, 현재 광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의 기업 측의 투자지지도 관건이다.

무엇보다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눈엍가시'로 보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예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정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시 조직관리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도 벌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본부의 조직 승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광주, 더 나아가 호남,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만큼 정부가 시노조의 전공노 가입 건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 경제가 걸린 최대 현안사업을 정부가 전공노 문제를 빌미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김민중 산업건설위원장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최대 현안사업으로, 그동안 정치권과 광주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공들여 왔다"면서 "정부가 전공노 문제를 빌미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의회 차원에서 성명 발표 등의 대응을 계획중이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 '빛고을 관등회'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14일)을 맞아 광주불교연합회가 주관한 '빛고을 관등회'의 하나로 '전통등 전시회'가 광주전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물고기·연꽃 등 60점을 오는 16일까지 전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더민주 8월말~9월초 전대 김종인 대표 체제 4개월 연장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9월초에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선인-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전대 시기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총선인-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는 조기에 전대를 개최하자는 측과 전대 연기를 주장하는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대표의 이 발언 후 이사천리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민주 당무위원회는 이날 또 당내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초 6~7월 전당대회 개최로 물러날 예정이던 김종인 지도체제는 좀 더 임기가 연장됐다. 이 안은 6월말에서 7월초에 전대를 열자는 '조기 전대론'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대 연기론'의 절충안 성격을 갖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원구성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김종인 대표

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를 해드리겠다. 더 이상 월가월부하는 상황을 피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초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조기에 전대를 개최하자는 측과 전대 연기를 주장하는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대표의 이 발언 후 이사천리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민주 당무위원회는 이날 또 당내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당무위는 경제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그 구성을 당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비대위와 관련, "내일(4일) 원내대표가 결정되고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일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 행진곡' 제창...국민의당·더민주 '온도차'

국민의당, 연일 정치 이슈화
더민주, 별다른 대응책 없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정치적 이슈로 부상시키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기존 당론이 었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5·18 이전에 기념곡 지정이 필요하다며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호남

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돌아선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도 지역의 최대 이슈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의 대응책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20대 총선에서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역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민주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민주 지도부의 호남 민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이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이 더민주의 정치적 취약 지구로 전락, 지역 민심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신대·호남대 '프라임' 선정...연평균 50억 지원 받아

조선대·광주대는 탈락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동신대와 호남대가 대학가의 최대 이슈였던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조선대와 광주대는 탈락, 충격에 빠졌다.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참여할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학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

으로, 취업·진로 중심 학과 위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사회 수요에 맞춰 학과와 정원을 전면 개편한 '사회 수요 선도대학'(대형)으로는 건국대·경운대·동의대·숙명여대·순천향대·영남대·원광대·인제대·한양대 등 9개교(수도권 3, 비수도권 6)가 선정됐다. 예초 대형 유형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조

선대와 광주대는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특정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으로는 호남·제주권에 동신대·호남대가 선정됐다. 정부는 소형의 경우 5개 권역별로 2~3개교씩 총 12개교(사립대 10, 국립대 2)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형 유형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연평균 50억원을 받는다. 동신대는 에너지융합대학을 신설하고 호남대는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시간 속을 걷다-산수동 듀이집 ▶18면

흡수자들의 반란
레스터 시티 우승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